

“답답함과 무력감 참는 연기, 도전이었죠”

영화 '강철비2' 대한민국 대통령 연기 정우성

“대의를 위해 인내하는 모습 보여주려 노력
코로나19로 극장 문화의 설렘 다시 깨달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지만 평화 협정의 당사자는 될 수 없어 무력감을 갖고 북미 정상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섰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배우 정우성(47)이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 연기한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의 모습이다.

한경재는 어렵게 성사된 남·북·미 정상회담 중 북한의 쿠데타로 북한 위원장,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 핵잠수함의 좁디좁은 함장실에 감금된다. 침엽하게 대립하는 북한 위원장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최근 오후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정우성은 “영화를 보고 나서 불행했던 우리 민족이 이 불행을 언제까지 겪어지고 가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데, 그 정세 속 이야기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내야 하잖아요.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부담되더라고요. 또 정우성을 ‘정치적 발언을 하는 배우’로 규정하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으니까 양우석 감독에게 ‘민감한 소재의 영화에 정우성이 들어가면 불리해지지 않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기도 했었죠.”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런 감정을 참아내야 하는 연기 자체도 “도전이었던” 정우성은 털어놓았다.

“한경재가 가져야 하는 고뇌, 그중에서도 인내를 가장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 한마디를 아껴야 하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보기에 답답하고 재미없겠지만, 대의를 위해 끊임 없이 인내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어요.”

정우성은 이번 영화를 통해 통일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본 듯했다.

그는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다”라며 “통일이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이 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그러면서 “한반도 분단국가에 사는 국민이라면 아픔의 DNA는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 영화를 보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볼까 싶었다”고 덧붙였다.

남·북·미 세 정상은 함장실에 갇히면서부터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



29일 개봉한 '강철비'

내기 시작하고, 진정한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영화의 설정 자체도 그랬지만, 배우들끼리도 좁은 곳에서 연기하면서 표현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각 캐릭터가 자신감 있게 표현되기도 했고요. 좁은 공간의 답답함, 더위, 열기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세 캐릭터의 감정과 기운이 화면에 담길 수 있었죠.”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잠수함 액션 장면이다. 정우성은 이미 21년 전 잠수함을 배경으로 한 영화 ‘유령’에 출연한 적이 있다.

정우성은 “유령’은 기억도 안 난다”며 “그때는 잠수함을 실제로 본 적도 없이 모두 상상력으로만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잠수함 내부를 견학할 기회도 있었고 기술과 장비의 도움도 받았다”고 웃었다.

정우성의 전작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지난 2월 관객을 만났으나 개봉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그는 “한 영화의 운명으로서 불운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정말 잘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영화 촬영은 계속 진행됐는데, 촬영장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코로나 외에도 OTT 등 때문에 영화나 극장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죠. 그런데도 극장 문화는 ‘함께 본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를 다시 느꼈어요.”

/연합뉴스

이승기, JTBC '싱어게인' 진행 유희열과 호흡...참가자 모집

JTBC는 하반기 방송할 신규 예능 '싱어게인' 진행을 가수 이승기가 맡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무명 가수,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비운의 가수, 시대를 잘 못 만난 재야의 실력자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증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오디션이다. ‘싱어게인’은 ‘슈가맨’ 제작진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앞서 심사위원으로 유희열이 합류했다.

유희열과 호흡을 맞추게 된 이승기는 “설 자리가 필요한 모든 가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오디션이라는 취지에 깊이 공감해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싱어게인’은 오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연합뉴스



이승기

정의는 있을까

JTBC '모범형사' 5% 돌파



'모범형사'

사형수 이대철(조재운 분)이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한 JTBC '모범형사' 6회 시청률은 5.1%(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 자체 최고 성적을 내며 월화극 1위를 차지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이대철의 사형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방송 말미 윤지선 살인 사건의 진범이 오종태(오종세)로 밝혀졌으며, 장진수 형사 살인의 진범은 따로 있음이 암시됐다.

이대철의 누명을 벗을 것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은 “드라마에서조차 정의가 없다”고 씁쓸해했지만, 과거 권력에 의해 사건들이 조작되는 전개 등에서 뻔한 권선징악이 아닌 현실적이었던 평도 있었다.

KBS 2TV '그놈이 그놈이다'는 2.4%~3.8%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상반기 온라인 최고 화제작에 '사랑의 불시착'·'미스터트롯'

방통위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쓰'도 화제

상반기 방송 프로그램 중 온라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 드라마 중에선 '사랑의 불시착', 예능프로그램 중에선 '미스터트롯'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국내 방송된 TV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등의 인터넷 반응을 조사한 '2020년도 상반기 방송 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청률 외에 방송 콘텐츠 가치에 대한 시청자 반응과 선호 등 질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2018년부터 방송 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동영상 조회수 등 지표가 포함된다.

상반기 인터넷에서 가장 반응이 많았던 드라마는 tvN '사랑의 불시착'에 이어 JTBC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쓰' 등이었다.

'사랑의 불시착'은 현빈이 연기한 극중 리정혁에 대한 공감, 주연



'사랑의 불시착'

배우와 스토리 전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부부의 세계'는 영국 드라마 리메이크에 대한 기대, 파격적 스토리, 출연 배우의 연기력 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태원 클라쓰'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점, 주연배우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에 대한 기대가 화제를 이끌었다.



'미스터트롯'

하지만 이들 드라마의 시청률은 10% 수준으로, 20% 중반대를 기록한 KBS의 주말·일일드라마에 비해 낮았다.

예능프로그램 중에서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의 맛',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가 상반기 가장 많은 인터넷 반응을 얻었다.

4~6월 방송된 교양프로그램 중에서는 EBS의 '자이언트 팽TV'이 온라인에서 가장 화제가 됐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을 돕기 위해 국내 인터넷 반응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반응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방송 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http://www.racoi.or.kr)에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게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 신규반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카이어 시선 강대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등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